



명월봉 선생

명월봉 선생은 1913년 정월 7일에 원동변강 연해구 빈씨마을 구역 시지리촌 빈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명 선생의 부친은 명 선생이 어렸을 때 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주로 어머니와 맏형의 교양을 받으면서 잔뼈 굵게 되었다.

향촌 시지리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1925년부터 어머니를 돕아 1929년까지 일하였다. 1929년 가을에, 16세 되던 해에 어머니와 형님이 뽕여준 돈을 가지고 원동에서 제일 큰 항구도시 블라지보스토크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블라지보스토크 고중에 입학한 명 선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공산청년단체를 통하여 사회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시었다.

명월봉 선생은 어린 유년시절부터 책 읽기를 무척 좋아하였으며 작물 장기를 아주 즐기었다. 공학교 시절부터 문학씨클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면서 자기 동창생들 앞에서 시 낭송, 연극 각본, 신문 랑독 등의

2
인계를 끌군 하였다. 1935년에 고종을 마감한 명
선생은 고종 공산청년 단체의 아주 훌륭한 평정서
에 따라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고려인 사
범대학 문예과에 입학 하였다. 대학 1학년을 마
감하자 원동으로 부터의 한인 강제이주가 시작 되며
중아시아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명 선생 앞에는 큰
다란 문제가 제기 되었다. 한인들에 대한 강제 이주는
지역 별로 따라 각이한 시간에 출발 되게 되었으며
또 최종 목적지도 잘모르고 있는 형편에서 형과 어버
니가 계시는 시지리 시에 찾아와 그들과 같이 동행 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면 학교와 같이 달아가는 학생들
과 같이 동행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우선 어머니는
형님이 계시니 딸 문제가 없는 것이여 집에 가고, 또 새
이주 정착지에 도착하여 대학을 찾아가는 문제는 시
간상 문제도 그렇지만 누가 일전 푼푼하게 돌아갈
사람도 없는 형편에서 경제문제 문제가 어렵게 제기
될 우려가 있기 때 문에 대학과 같이 따라 이주하기
로 결론 짓고, 대학을 따라가는 다른 학생들과 같이
이주 기간 대학로 부자로 등용되려서 대학출산
적재, 하차 운반사업에 전적으로 협력하여 가면서
가자흐한, 크를올다 시에 도착 하였다. 블라지
부쓰도코에 조직 되며 많은 유능한 한인 지식인
들을 배출한 한인 사범대학은 전 세계적 범
위에서 첫 한인 대학이였다. 우리 선조들의 조국의
수도 서울에 대학들이 있었지만 그 대학들은
전북다 일어로 교수하는 일본인 대학이였다
다 이렇게 자랑스럽던 대학도 쓰하린의 민족

한 압축책, 그의 절대적 파소독제 정책에 의하여 아
 매한 한인들에게 일제의 스파이 동정자로, 반역에 일
 제가 소련에 칩업할시 일제를 지지할 기본호대로 될수
 있다는 누명을 씌워 원동지역에 살고 있던 전체 한인
 들과 전 소련 각 도시들에서 살고 있던 한인들라 각 병종
 들에서, 각 내무기관, 사법기관 등에서 복무하던 모든
 한인들을 제때, 해고 식혀 전부다 몽땅 공아시아
 로 실려왔다. 이 당시 만약 남편이 ^{한인인} 복인이 다민족일
 경우에는 복인도 남편을 따라 강제 이주당하였으며,
 만약에 정반대로 남편이 다민족이고 복인이 한인일
 경우에는 그가 정은 반듯이 파산되거나, 그렇지 아니면
 남편의 결심에 따라 한인들과 같이 이주하게 되었다.
 강제이주는 전에 어떤 무법천지 강제, 폭력행동이 없
 기때문에 수많은 가족들은 위치로 출장갔든 식구가
 자기 살던 지역에 다시 돌아올 시간이 부족하여, 자기
 가족과 분산 되어 이주당하였다. 그것은 어떤 한 지
 역이나 불문하고, 지역 이주책임자의 말에 떨어지자
 한인들은 48시간, 특별 경우, 공백할 지역에 살고
 있는 가정에 한하여서만 70시간 이내로 살던 지역
 을 떠나 화물자동차에 약간의 이불공급이와 공인
 분 양식을 갖고 적재하여야 하였다. 살던 자리에서
 떠날 시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현물이나 현금으로
 주고 온 재물들을 보상한다고 하였으나, 그런것을 수구하
 고 달라고 할 힘으로 없었다. 금년이 강제이주 60
 주년이 다 되었다. 한인들은 그 추악한 일제스라이
 누명을 벗을 수로 없고 또 누가 그런누명을 벗겨줄생각
 도 없네로 안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구름한

죽어 가는 대낮에 백락을 맞은 모양이 된 휘황적 노을
한 한인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그 후회한 그 수명 "일론스타이
수명"을 해끼기여 인간의 가장 귀중한 인간다운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별히 금년에, 강제이주 60돌에 제
하여 우르베크탄에 살고있는 한인 남녀노소들은 5천명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나 대다수 한인들의 기대는 대단히 크다.

부모나 친척들에게서 하등의 방조도 기대할 수 없는 형
선생은 강제이주 후 코스를 몰다 시에 도착하여서도 공부는
계속하고 있었으나 그 비바빳한 경제적인 조건을 해결하
기 위하여, 블라지 보스도코 시에서 공부하던 중학교 시
절에도 널판자공장에서 여름동안에 일로 공부하여 의복
과 신발 문예를 해결하듯, 이중아시아 고된 여름기
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나 나물 한이 없이
하며 자기 용돈 벌이를 하곤 하였다. 형선생 성격은 원
래 우렁차림 씩씩하고, 깨끗하고, 감칠라같이 강하
여 꺾어는 질지언정 후려두지는 않는 성격이었다.

선생은 목았어나 풀고 언정한 일에는 손을 걸고 선
두에 서서 처리하였으나, 그곳된 일에는 불구 대천어
였다. 형선생은 대학 시절에도 공영회 사업은 비롯한 기
타 사회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면서 특히 문예 서클
에 열성적 기교를 발휘하여 창작물에 세련을 연마하였다

형선생은 1939년에 한인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동년
신학기 개혁과 태를 같이하여 까작스 공화국 우르 또베
군 소재지 고급중학교 문학교원으로 파견되어 교편을 잡게
되었다. 고급 문학교원으로 배치받자 항상 비바빳하게 살아
가던 경제구속에서 해방되어 원래부터 의복차림도 잘

하고 26세의 성숙되고 상식상으로 준비된 비남자도 ^{5.} 취
 결집에 상당한 취미가 없으면 부모들에게 혼사받으릴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 멀베리 않은 본산-교육사
 업비, 또는 사회사업에 열중하면서 일년동안이나 시간을
 두고 자기와 일생을 같이살 대상을 끌고 있었다.



사진은 1956년에 병성생이 인민군
 신문사 부국필로 게시 당시다.

평양역전에서 자기 복인 김울리가와 같이 촬영하였다.

병 월봉 선생은 이렇게 외침으로 일년동안 일하다가
 1940년에 우스도비 시에서도 으뜨가는 어여~~쁘~~ 취리
 김울리가 양에게 장가들었습니다 결혼후 일년간 일한
 다음 1941년에는 소련인민의 위대한 조국전쟁이 시작되
 었다. 그 당시 한인들은 강제이주당시 씨위놓은 누명에서
 하여 불신입불자로 전선에는 파견하지 않고 그대실로
 력 전선에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부분적 한번 청년들은
 조력전선에 파견되었다 하여도 제 일선에서 철교부
 설, 철도 수리작업은 전후부터의 업무와 못지않게 위험하

하였다. 그 당시에 명선생도 조국건설에 동원되어 제 일선근방 도시, 뉘스쿠바시 남부에 위치한 뉘라-공업도시에서 공장 노동자로 약 반년간 일하다가, 마침내, 사대졸업생 교원들은 노동전선에서 제대시켜 자기본직업, 교육사업에 돌리라는, 소련 최고소베트 상임위원회 명령에 따라 자기 학교에 돌아와 일하게 되었다.

1945년에 소련인민의 위대한 조국전쟁은 소련의 절대적 대승리로써 끝났으며, 1945년 8월 15일에는 일제가 패망되고 한반도가 해방되었을 때에 명선생은 소련정부의 파견을 받아 북한에 가게 되었다. 평양에 도착한 명선생은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으로 일하였습니다. 1950년에 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시기에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소베트 국가의 명의로 출판된 "소베트신보"사의 사원으로 일하시다가 1955년 "소베트신보"사가 해산되자 명선생은 "인민군" 신문사에 전근 되어 취임교정원으로 다음 북극 필로 1958년 말까지 일하였다.

명선생은 일제에서 해방된 북조선에서 조국건설에 있는 다 반해가며 열성적으로 일하시었다. 18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학졸업 상식을 가진 문학 교원으로 기술적으로 뻔뻔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성숙된 국가적 수준의 인재였다. 명선생은 말씨는 짝어어하하하 어느때든지 사회질서에 대한 관점은 명철하며서 북한의 사회주의 길에서 배반적으로 리 탈하여 극체첩 대리를 논 개인독재주의, 민족주의 형용에 백색테러주의 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똑똑하게 알고 있었다. 명선생은 박헌영에 대하여 비러낸 피비린 비극, 허가어 많살

사건, 특히나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이었던 김태권, 김원길, 김철우, 안철, 김일예 대한 허무생략한 수평을 씨외 월직 제대 후속 또 그후 김철성, 리익선 정학준 등 후속등에 대한 비극은 명선생같이 천명같이 개골한 인간에게 더는 북한에서 살수있는 도덕적 정신을 가지 않았다. 이후 명선생은, 드리에 소련대 사관에 찾아가 소련 공민권 회복에 대한 청원을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위원장께 제출하고, 소련 귀국 요청까지 제의하였다. 명선생은 1958년 9월에 청원으로 제출하여 동년 11월에 모스크바의 허가를 받고 11월 중순에 전가족이 평양으로, 선조들의 고향, 또 소련에 살고있는 수십만명의 한인들의 보고 싶은 원망의 나라를 떠나게 되었다. 명선생은 출발하기전 후원 수만명의 한인들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 중국에서 온 사람들, 남한에서 들어온 사람들,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원망하러 들고 다니는것을 볼게되었다 그들은 명선생의 가정으로 보고 말하기를: 「당신들은 갈수있어, 가게되어 좋다」고 하였다. - 우리들은 「갈데르 없애, 소련서 온사람들도 극적이 완전히 조선국적(이종국적이 아님)이 된사람들은 떠나볼수가 없었다. 이렇게 죽어 월직되고 평양에서 출출되어 농촌에 나가게된 가정들은 2-3년후 완전히 전가족이 월직하고 말았다. 우리백공화국에서 북한에 4간 (공산당 중앙 비탈문전고 재로에 의하면) 총 세대주 수는 262명, 그중에서 공화국에 도주돌아온 가족 세대주 (유가족 후원회의 총계에 의함)는 62세대 세대주와 함께 돌아온 가정은 42세대, 1997년 5월 19일 현재로 남아있는 세대주는 6명, 독신할녀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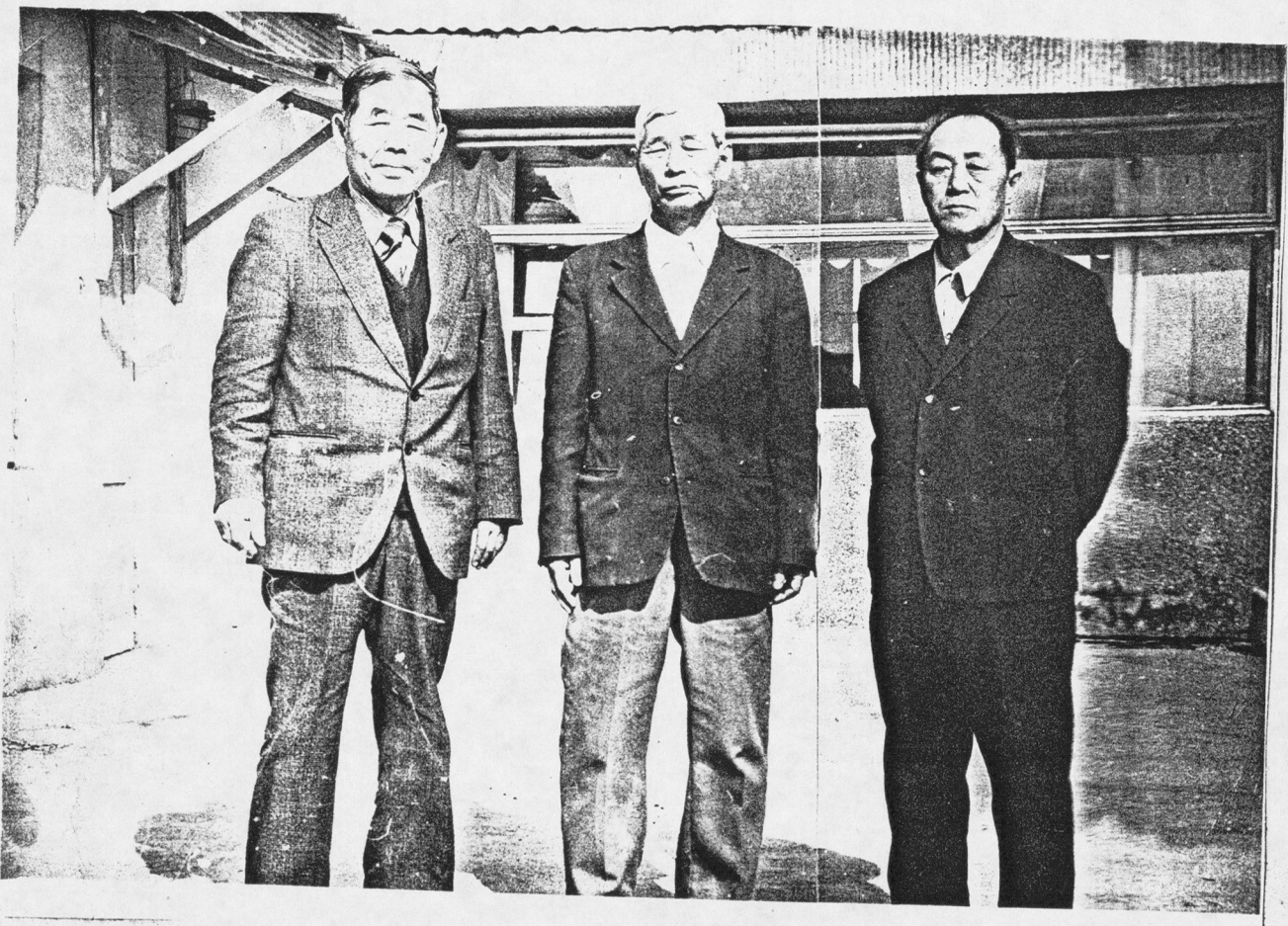
29명, 생존하고 있다. 그 남아지은 전부 다 북조선
 농촌지방이나 한강에 가서 죽었다. 현재 평양에 살고있는
 전 소련 출신 간부 제 2차대는 김봉을, 김학언, 박영, 박어
 고 명원군에 김철문 선생의 아들 화실리가 있고, 대릉군에
 살고 있던 전 로동성 부상 박태준 씨의 가정은 소련에 와서 살
 고 있는 자식들과 연락이 끊어져 감산군 어느 공작반 출
 세 실어따가 학살하였다는 노식이 있다.

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명선생은 확실히 명철한 결
 심을 해했어하고 제때에 그 학살자들의 눈에서 탈출하게
 되었다.

명선생은 1958년 11월에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당중앙 위원회 비서실임 당당 조직부장의 지시로 반
 야 다뉴겐으로 도착하게 되어 당중앙 고등당학교에
 서 공부하게 되었으며, 가족은 다뉴겐도 시내 칠란사르
 에 집을 배정받고 아들 3형제는 각 대학들에서 공부
 를 계속하게 되었다. 명선생의 부인 김물리가는 재봉공
 장에서 기술재봉공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명선생은 1962
 년에 다뉴겐은 중앙 당학교 신문기자 학부를 우수한 성
 績으로 마감하고 중앙아시아에 유일한 한민 신문
 <레닌기치> 신문에 파견되어 거기에서 신문교정
 원, 신문기자 등 직종에서 여러 ^{종류}의 일하면서 편서
 녹서, 단편소설 등을 계속 쓰면서 세계 한민 문화
 발전에 필요한 제책으로 리론 문설들을 추와 서술
 하여 <레닌기치> 신문지와 한국신문들에 ^중 발
 표하였다. 1991년에 서울 ^{에서} 진행된 한글리론 콘퍼런
 시야가 진행되었는데 선생은 <국어-한국어 단
 어 조성법에서의 대비관계 고찰>이란 보고서를 그 때

회에 보내어 그 대회 문고 종합철과 또 다른 소책자
로도 발췌되었다. (종합철 157 페이지) 대회의 총제어는
« 한글 »이란 명칭이었다.

역시 1991년에 «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 제목으로 진행된
판페션 세미나에로 선생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내
였으나 그의 제목은 - « 재노 고려인들에 대한 교
육의 역사적 과정 »이었다. 본 보고서도 역시
대회 종합 문고철에 기록되었으며, 소책자들도 독립적
으로 출간되었다. (종합철 - 275 페이지)



사진은 명선생 아래인 기차 신문사 기자로 게 실시
자기와 다정한 친구들과 같이 촬영한 사진
자료 부하: 김두철 선생, 김호조 판리위원장,
명월봉 선생.

영선생은 1983년까지 신문사에서 21년간이나
 일하시기도 그후 퇴직생으로 나와서도 하유권은 사범
 대학 고려학부에서 자기생애의 마지막날까지 교
 편을 잡고 젊은 세대들의 교^육사업에 있는 열성을 다하
 였다. 이렇게 일하시면서도 병행하여 문학 창작사업에
 열중하여 여러편의 시와 단편소설들을 후배들에게
 남겨 놓았다.

영선생의 단편 작품들은 김연우 박사의 명의로
 출판된 『자발라야 너는 나의 생명』 (1989년
 2월 1일 시월) 책 제 170-213 페이지에 : 그들의
 운명, 라들사한들, 권사리 편지 등으로 발표 되었
 으며, 영선생의 시들은 『알라라 꼬리날개』의 발
 행으로 출판된 종합시집 : 『꽃 피는 땅』 의 127-
 136 페이지들에 : 조국의 풀, 마이삭, 평화를 지키라
 등의 제목으로 실려 있다.



사진은 당학과 졸업후 『세민기초』 신문사에서
 일하시던 때에 촬영한 것이다.

영 선생은 자기 생애의 말미라 할 때까지 행이 (11)라고는 모르고 건강체로 계시며 일하시다가 심장약병으로 1991년 12월 25일에 서거하시었다. 영 선생은 북한 정체와 기본 로선물례로 무르익한에 다시 귀국한후 무차 다시 평양에 들어갈기 되는 없었지만 사상적으로 흔들려서 돌아온 길로 다시 걸고, 자기 양친과 가까운 친구들의 명예를 욕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자기 선조들의 고향인 남한 서울길은 성스럽게 걸게 되었으며 1991년 10월에 광주 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남한 땅을 처음 어라 말미 막으로 밟게 되었다. 남한에 도착한 영 선생은 남한의 다른 과학, 문화인들과 뜻 같은 사상이 갖는 여러 인제리들과 어함없이 기쁜 이야기들로 서로 주고 받음무 없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하여 약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한 운명은 영 선생의 많은 할 수 있는 일들을 성공케 못하였다. 영 선생은 아들 3형제 딸하나와 많은 손주들을 자기와 일생을 하루 같이 다정하게 지내든 부인 김윤희가 에게 남기고 멀리 세상을 떠났다. 영 선생의 장남 영 드의 드리는 과학계에 널리 알려진 과학인 역사학 박사이며, 여남과 3남도 대학을 나왔으며, 위신 있는 경제 역군들이며, 딸 영 근사도 위신 있는 역군으로 사회에 진출하며, 1개 일같이 어머니 건강에 대하여 걱정하여 주고 있다.

1997년 5월 20일. 관원.